

지역사회에서 일한다

10

충남여민회

대전지역 사무직 여성운동을 탄탄하게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는 충남여민회(공동대표 허성우 외 2명)는 20~30대 직장여성 50여명으로 이뤄진 젊은 단체이다. '중앙동'이라 불리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에 자리한 충남여민회 사무실은 10여평 남짓하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충남여민회가 하는 일은 결코 작지 않다.

제2금융권 여직원, 사립학교 교사, 간호사들이 술하게 부닥치는 결혼후 퇴직중용, 부당해고 사례를 지방노동청에 진정, 복직으로 이끌어 사무직 여성의 평생 노동권을 부분적으로 확보한것은 충남여민회가 이룬 큰수확이다.

충남여민회 활동은 여성의식·교육·사회문제를 주제로 한 여성토론회, 여성학교교육, 여성문제상담,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 풍물패 활동, 새로나온 좋은 책 선정, 회지 '큰터' 발행 등등 주로 사무직 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7년 6월 항쟁을 전후해 '취루탄 추방운동'을 벌인 주부, 대졸출신 직장여성 30여명이 중심이 돼 그해 12월13일 창립된 충남여민회는 초기엔 여성의식 일깨우기, 소비자, 인간화교육, 직장내 남녀차별 등을 두루 다뤘다. 이처럼 폭넓게 여성문제를 다루다 보니 구심점이 없어 소비자, 교육, 종교 소모임을 특화·독립시키고 사무직여성운동으로 범위를

좁혔다. 소비자소모임의 회원들은 한살림 소비자협동조합, 교육소모임은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지부, 종교 소모임은 대전기독교성회가 창립될 때 밀뿌리 역할을 해 현재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대전의 여성운동이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4%를 밀도는 대졸 여성의 취업문화개방을 비롯해 직장내 남녀차별, 결혼퇴직제, 여성의 불완전 고용문제해결 등 넘어야 할 고비가 수두룩 해요."

4년여동안 충남여민회를 이끌고 있는 허성우(32)씨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생활에 안주하거나 여성·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게



생산직 근로조건 개선 적극 나서기로 지방의회 여성후보자와 토론회 계획

단점이지만, 그래서 활만하다"고 말했다.

해마다 대전의 대졸 여성취업자는 손가락 꼽을 정도이고 취직되는 곳도 학교, 제2금융권, 판매, 서비스직, 개인회사 등이다. 대부분은 한 동마다 2~3군데 되는 속셈·주산·컴퓨터학원 강사로 나가거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취직난 때문에 경쟁이 높아 자리얻기도 쉽지 않다고 회원 김은영(26), 구애희(26), 전해련(28)씨는 말했다.

"학원장 마음대로 월급·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퇴직금도 없이 해고시켜 상담·고발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중에 대졸여성 학원강사들의 불완전 고용실태를 조사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학원강사 불완전 고용문제와 함께 충남여민회가 올해 역점을 둘 분야는 생산직 여성문제이다. 대전시 인구 1백5만여명 가운데 취업 여성은 13만여명으로 13

%를 차지한다. 5인 이상의 제조업체에 다니는 여성은 약 3만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5명 미만의 영세 제조업체에 다니며 월급도 도시 노동자 최저 생계비에는 못미치는 20만원 선이다.

"사무직 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는데도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밝힌 허씨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를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 이들이 안

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을 함께 찾고 교육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여민회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대전기독교성회, 주부아카데미협의회, 대전지역 여학생대표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2, 23일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첫날은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여성과 지방자치제'란 주제로 발제 강연을, 둘째날은 여성 후보자와의 공개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교육을 맡고 있는 이정자(27)씨는 "여성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지역운동, 여성운동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후보자와의 공개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연숙 기자〉

충남여민회는 지방자치제에 대비한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첫날은 '지방자치제란 무엇인가' '여성과 지방자치제'란 주제로 발제 강연을, 둘째날은 여성 후보자와의 공개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